

# 5년 만에 품은 단원고 졸업장 ‘눈물바다’



12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희생학생 명예 졸업식이 열렸다.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확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2월 12일 단원고등학교장.”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이 12일 자녀의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이 제주도 수화여행 길에 올랐다가 2014년 4월 16일 예상치 못한 참사로 희생된 지 5년 만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3년 전 자녀가 받았을 졸업장이다.

자녀 대신 받아 든 꽃다발과 졸업장 앨범을 산 황색 보따리 위로 뚝뚝 눈물이 흘러 바로 젖어 들었다.

당시 세월호 침몰 소식에 가슴을 졸이며 숨가빠 달려왔던 안산 단원고 본관 4층 단원관(강당)은 학부모 집결지 겸 대기실이었다. 세월이 흘러 허부모는 유족으로 이곳을 통곡의 졸업식장이 됐다.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이날 명예 졸업식이 시작되고 양동영 단원고 교장이 250명의 희생 학생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

다.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2학년 10반 장혜원.”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던 졸업식장은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오열로 눈물바다가 됐다.

재학생 20여 명이 ‘눈물기도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하면서 선배들을 기린 데 이어 희생 학생들의 재학시절 후배였던 10회 졸업생 이희운(2017년 졸업)씨가 ‘졸업생 편지’를 낭독했다.

이씨는 “보고 싶다는 말로 편지를 가득 채우고 싶었지만,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미소지으며 다가온 선배님들, 감사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목척던 감정을 이제 와 꺼낸다고 믿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개할 꽃만큼 행복해 달라”며 낭독 내내 울먹였다.

현명선 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은 회고사에서 “이들, 딸이 있어야 할 졸업식장에 없다. 아빠가 공허한 마음으로 와 있다. 아들, 딸의 희생을 영원히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 명예 졸업식 개최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 주제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졸업식에 앞서 취재진에게 “아직도 희생 학생들이 제적 처리됐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아 명예 졸업식을 하게 됐다”며 “제도를 바꾼 만큼 다시는 학사 일정 중에 희생한 학생들이 제적 처리로 명예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산 단원고는 애초 2016년 1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졸업에 맞춰 희생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도 준비했었다.

하지만 희생 학생들이 제적 처리되고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남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졸업식을 늦췄다가 이번에 명예 졸업식을 열게 됐다.

졸업식장 중앙을 채운 250명(미수습 2명 포함)의 희생 학생 좌석에는 얼굴 사진이 새겨진 학생증과 황색 보따리, 꽃다발이 놓였다.

황색 보따리에는 졸업장과 함께 희생 학생들의 졸업 앨범 두 개가 담겼다. 하나는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제작했고 하나는 교복을 입은 모습의 학교 졸업 앨범 형식에 갖춘 것이다.

사고 당시 학생들이 수습된 2학년 1~10반 학급별 팻말에는 새로 부여된 3학년 13~22반도 함께 새겨졌다. 제적 처리됐다가 학적이 부활하면서 부여된 학급이다.

졸업식장 희생 학생 좌석은 절반 정도만 채워졌다. 전체 250명 가운데

120명 정도만 참석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졸업식 직전 “기습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아이들이 살아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위로나 위안이 안 된다. 많지 않은 부모가 졸업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 졸업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유 장관은 울먹이면서 “이제야 명예 졸업식을 하게 돼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한 번 생각하게 한다”며 “안전한 사회 만드는 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도 “5년이 지났지만 250명 학생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아까운 이름으로 경기도교육에 남아 있다. 명예 졸업식은 희생된 250명의 뜻과 희망, 꿈이 경기도교육에 영원히 남아있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약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도로 수화 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250명이 희생됐고, 생존한 75명은 예정대로 2016년에 졸업했다.

희생 학생 시신은 대부분 수습했지만, 2학년 6반 남현철군과 박영인군은 결국 찾지 못했다. 교사 양승진씨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 40만대 서울 운행 못한다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가동된다고 12일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가 단속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다.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쁠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을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공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상저감조치 대상발생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권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시는 어린 자녀가 휴업·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단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속한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과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올해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 200량이 도입됐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된다.

## 박원순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한반도 평화 종착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이 평양과 함께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종착점’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열린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은 동서 냉전 기류 속 화해 올림픽이었고 2018년 평창올림픽은 ‘평화의 시금석’을 놓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2032년 하계올림픽이

스포츠 축제를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2032년까지 남북이 함께 차근차근 준비

서울, 부산 제치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 “스포츠축제를 넘어 한반도 운명 바꾸는 계기로 만들 것”

한다면 남북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남북시대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평양 측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

유치가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다. 평

양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는 이러한 서울의 노력 가운데 최정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공동 유치부터 공동 개최까지 앞으로 남은 13년이란 시간동안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겠다”며 “서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투표에 앞서 박 시장은 15분간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서울이 올림픽 개최도시가 돼야 하는 당위성과 서울시의 유치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